



중소기업 활짝 피어라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원장

TIPA(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임래규 전 산업자원부 차관 (대담)

글 한지윤 기자

〈기정원(TIPA)의 4대 핵심가치〉



“기정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정보화를 총괄 지원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다. 매서운 날씨마저 잠시 주춤했던 지난 1월 28일, 양봉환 기정원 원장을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년간 정부에 몸담았던 양봉환 원장에게는 공직자 특유의 포멀(formal)한 분위기가 났다. 학자 같기도 하고 선비 같기도 한 ‘꼴깍(?) 기관장’의 모습 그대로였다. 기정원의 핵심가치 중 하나가 ‘청렴’이라 하더니 과연 양원장의 얼굴이 ‘청렴’을 빼닮았다. 기정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문기관. 창조경제를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창업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파트너’인 셈.

양봉환 원장과의 대담은 산업자원부 차관, 특허청장, 가천대 행정부총장 등을 지내고, 최근에 세계 최초 ‘무세제 세탁기술’을 개발해낸 임래규 춘파 대표이사가 수고해주셨다. 이날 대담은 양원장의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임래규 전 차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기정원처럼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없다”며 “양원장의 ‘꼴깍 리더십’ 하에 지금까지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중소기업인을 향해 열려있는 기정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기정원의 R&D사업에 극찬의 메시지를 보냈다.

중소기업의 푸른 미래를 꿈꾸다

임래규 전 산업자원부 차관: 먼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간의 성장 및 성과에 대해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임차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정원(TIPA)은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정보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고용과 생산의 핵심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역량으로써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후발 경쟁국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어야 그간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과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정원은 이와 같이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정보화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원은 지난 2002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기술개발과 정보화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소기업 R&D지원 기관

입니다. 2016년 기준, 연간 8천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기관의 확대된 기능 및 역할 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도전을 성공으로 연결하는 R&D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거쳐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이룰 핵심 키(key)가 바로 기술혁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정원과 함께 한국 중소기업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기관

임 전 차관: 기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양원장: 평소에 ‘소통’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연혁회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소기업R&D 지원업무가 기정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통합된 조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정원이 신뢰받는 국내 대표의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부 조직 간, 개인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직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단기적·장기적,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다양한 관점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균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 전 차관: 2016년 기정원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기정원의 새해 운영방향과 기정원에서 생각하는 좋은 인재상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양원장: 새해 기정원은 기관운영 방향으로 “당당한 기정원, 소통과 협력하는 기정원, 진격하는 기정원”이란 키워드로 4가지 중점 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한층 높아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R&D현장에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둘째, 평가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傾注)하고자 합니다. R&D 신청과제 중 우수과제의 평가체계 고도화, 우수평가위원 양성 등 선발 역량 강화가 결국 우수한 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기정원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전문심사역 제도의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대외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R&D와 관계된 공공기관, 협단체, 학회 등과 긴밀히 네트워크하여 R&D정책 발굴 및 개선, 유망기술 도출,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성원간 소통, 화합, 협력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정원의 인재상은 “중소기업의 도전을 성공으로 연결하는 R&D 파트너”라는 기관비전에 맞게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인 만큼 청렴함과 창의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정원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사업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춘 인재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민관협력채널이 중요하다

임 전 차관: 31년간이나 공직에 몸담았던 저도 이제 기업의 CEO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공직자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 깨달았습니다. 공직생활을 할 때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평범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지요. 기업을 경영하는 일은 항해 중인 선장이 매번 암초에 부딪히는 일과 같습니다. 기정원에서 시행하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다양한 제도에 비해 실효성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원장: 결국 R&D의 성과도 판매로 나타나야 하겠지요. 그리고 판매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정부 정책은 대기업에 기울어진 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판매지원을 위해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등 판매채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개국한 IM쇼핑도 그 예인데 6개월 정도 운영했지만 반향이 큼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일반 홈쇼핑 업체에 납품을 하면 수수료가 34%대인 반면, 아임쇼핑에서 운영하는 공용홈쇼핑은 23%대로 11%p 정도 더 낮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중소기업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업을 원하는 우수인력들을 위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3만불에 돌파한 시점에 벤처 창업을 원하는 인력들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기술을 지향하는 기업, 세계시장을 바라보는 기업 탄생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배포가 있고 안목이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교육과 정부정책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창업보육센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우수인력을 창업시장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작된 프로그램이 TIPS입니다. TIPS는 엔젤투자자가 주도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별하고 정부 R&D 등을 지원하여 미래유망한 창업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과감한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자, 초기전문 VC(Venture Capital:벤처금융), 기술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하여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R&D자금 등을 매칭하여 일괄 지원합니다. 투자자들이 우수인력을 선별해서 1억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최대 5억원을 지원합니다. 창업 회사가 발전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4억원 투자가 이루어져서 총 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여개 사에 투자

가 이루어졌고, 엔젤투자자들과 정부의 투자액은 700억원에 달합니다.

기정원의 최우선과제 ‘개발한 기술(R&D)의 사업화’

임 전 차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양원장: 중소기업청 R&D지원은 주요 목적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R&D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결국 R&D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계적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R&D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2014년 기준 50.2%로, 민간 자체 R&D의 사업화 성공률인 34.8%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소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창업 → 혁신기업 →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R&D 사업화로 매출확대 및 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정 및 평가단계에서부터 사업화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과제를 평가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정원은 R&D 평가위원회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법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이후 사업화 성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가감점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체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할 수 있도록 R&D기획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R&D기획지원사업”은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중기 사업전략 수립 등 사업화를 고려하여 R&D 기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정원은 자



발적인 사업화 추진을 유도하고 연구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화 성과공유계약제, 성과지향형 후불형 R&D지원, 시장상황을 고려한 무빙타겟제 등 R&D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R&D 성공기업의 사업화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 성공 이후에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도

임 전 차관: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활동을 돕는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해서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28개 대학과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유망(예비)창업기업에게도 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원장: 기정원은 2002년 설립 초기년도부터 정보화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 서버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 실태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한 시스템이 기

대한 만큼 유용하게 쓰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정보화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시스템을 관리할 인력,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비용측면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기업 단위로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유지보수 및 보안은 기정원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플랫폼 구축에 200억원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5년 12월말에 1만2천727개 중소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특화 업무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금융, 세금, 매출, 영업)에 대해 기본 S/W솔루션, I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 IT 서비스(경영혁신플랫폼 기본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 인프라(클라우드 자원), 서비스 이용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2천70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불과 3천800여 개의 기업만이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하던 과거 방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는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현재의 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를 오픈마켓으로 확대하여, S/W기업과 영세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정원은 2016년 1월에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된 전국 2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망(예비)창업기업에 대한 경영혁신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人)의 동반자가 되겠다

임 전 차관: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지망생들과 중소기업 CEO들

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양원장: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취업상담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가면 일이 힘들고, 인생이 험난해진다고 하던데 정말일까?’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질문을 한 대학생처럼 중소기업은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정원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힘내시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라는 구분으로 행복을 구분 짓기보다는 내게 맞는 자리에서 일하니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기정원은 여러분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국내는 물론 세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임 전 차관: 공직 경험과 CEO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과거에나 지금에나 고위공직자였던 덕분에 많은 advantage(이점)과 privilege(특전)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운영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숨을 놓으려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이곳, 저 곳에서 발생합니다. 저는 ‘세제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포부를 가지고 무세제 세탁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세제 세탁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에서의 성과를 보고 시험과 준비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시장에서 판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고, 기술 투자를 위한 자본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고, 기정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자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해서, 중소기업들이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진적인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Yang Bong-Whan



출생: 1957년

학력: 한양대 행정학, 한양대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정책국장/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Bookmark(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 뉴스 스탠드(<http://newsstand.naver.com>)

존경하는 인물(국내외): 김구

지금 읽고 있는 책: 이종호 저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유산

젊은이에게 강조하는 말씀: 도전하라!

취미: 독서

가족관계: 부인과 1남1녀